



셋째, 기업·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환경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에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 의한 자율환경감시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지구환경 보전에 능동 참여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97. 12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98. 11월 제4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개도국인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뜻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규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업무분담 및 협의기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정부적인 지구환경 보전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지구온난화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함과 아울러 지구온난화 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3. 맺는 말

“농사는 1년지 대개요 교육은 백년지 대개”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천년지 대개”라고 할 수 있다. 지나온 천년은 환경과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물질적 풍요로움은 크게 성취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후손의 삶의 터전인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었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환경호르몬 등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99년은 이러한 환경적 위해를 해결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국가정책은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사전예방적 환경행정의 확립, 환경과학기술 증진, 환경투자 확대 등 환경친화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